が別ない。 対別ないまでは、 対別がいません。 対象がいません。 対象がいる。 対象がい。 はるが、 は

問動

The Chasun Ilba. (The Kacen Latty News) Seaul.

八四 街里間 明報 日 町 車 開 面 日 町 車 開 面 日 町 車 開 面 日 町 車 開 面 日 町 車 開 面 日 町 車 開 面 日 町 車 開 面

首選案

本原元

The Korea Daily News. Scoul, Korea, Friday, Nov. 6th, 1925.

THE UNMANNERY TIGER. from "Fairy Tales of Many Countries."

But after a tremendous leap in the air he landed in a pit and all of a heap, bruised and disappointed. There was no tiger to be seen, but instead a heavy lid of logs had closed over his head with a crash and he lay in darkness. Old Mountain Uncle was caught at last. Yes, the hunter had concealed the pit with sticks and leaves, and on the upright timbers, covered wilh vines and brushwood, had hung a looking-glass. Mountain Uncle had often beheld his own face and body in the water, when he stooped to drink, but this time not seeing any water he was deceived into thinking a real tiger wanted to fight him.

By and by, a Buddhist priest came along, who believed in being kind to all living creatures. Hearing an animal moaning, he opened the trap and lifting the lid saw old Mountain Uncle at the bottom licking his bruised paw.

"Oh, plcase, Mr. Man, let me get out | Q I'm hurt badly," said the tiger.

Thereupon the priest lifted up one of the logs and slid it down, until it rested on the 量力量代 bottom of the pit. Then the tiger climbed 如做十一個 up and out. Old Mountain Uncle expressed | 空景空補色 his thanks volubly, saying to the shaven head: "I am deeply g ateful to you, sir, for helping me out of my trouble. Never-theless, as I am very hungry, I must eat you up."

호령이 이야기 (二)

결고리手

(同競技場)

H 下午 三時日

一、抽籤場所

學校運

· 養稱關不已於計2 (納計叫陳里人士)

蹴球 會

申請場 請期 所 年平 十 会事務 所有

小學院や三個

月十日外の

加 金體 B

朝

鮮

住以五· 村内 村内 村子

政府の人に朝鮮の経済をはいる。

の何君となり、というののというでは、これのとなり、これのでは

大會量に催むの人に中光州カチ市中會の人間米也被影响銀河の一个海際の人間米也被影响銀河の一个海際等で見けま常也數理場例の一中時の女優洞庭月の一般のプロ空感化量不安中日中(羅州)

知郡州

이査을上午

日二十人2九二 記事中朝鮮 一頭第九郎 一面第九郎

訂二

浙

全門順大郡順大選民出生門順大郡順大選展出記のリングロココージのリングロココン大議のリングロココン大議

라못不停上이

一創立国 執珠特◇爿

が受け、一般ないでは、大学のでは、 炳植白

衡平講習

討け円社會5 奉公

間 間

アサーロ任地の協選 氏と京城日宅の 停留 (湖南銀行順天支店店

方人事消

急

青年會館『分音樂演劇『年春館』が、日本のでは 日本のでは、日本の

明里漫友夜學講習會之今 所里漫友夜學講習會之外 所里要友夜學講習會之別立以 好口外同講習會之創立以 好」外面講習會之創立以 好」の記述然可正和一斗 中、追頭可嚴不可追加言 中(閩州)

当主改定な(松坡) 雑品従前百分之十号百

水管勞選 水管勞選

ব

任自ol金敬道氏(順

0

渭原

四告罪己

酒類密造者の

日客主吐有利

12021 원미종원(李鑫) 보접습) 학원회에 가야 전 보급을 열리하다하

지흥권남리주(全南羅州) 진지 등장당(龍岡町)삼십번디메기 전등장당(龍岡町)삼십번디메기 전등장하고 인천5 거 첫대한일 등장하고 인천5 거 첫대한일 등장이 인천경찰서로 구인(拘引) 모든 거맹수(徐孟洙) 있는 당각자에 보도한바의가리 치안되어 보도한바의가리 치안되어 보도한바의가리 치안되어 되는 것이 하면 보도한바의가리 지나지못하였습니다일시 전의자에 지나지못하였습니다일시 전의자에 지나지못하였습니다일시 전의자에 지나지못하였습니다일시 전의자에 지나지못하였습니다일시 전의자에 지나지못하였습니다)

이 아모소식이 업습이로 가족들이 전에서는 민치(民籍)까지 말소하 이 어머니 이 어머니 이 지어도 마지(民籍)까지 말소하 그 이 어디 이 지수하는 요즘이 지난십월 삼십일에 함 시스 한지 만이 보기는 빗말가른함 시스 이 기수하는 요즘이 이 기수하는 요즘이 이 기수하는 요즘이 기가 하는 요즘이 되었다 내용을 듯긴대 문 이 기수하는 요즘이 이 기수하는 요즘이 이 기수하는 요즘이 이 기수하는 요즘이 되었다 내용을 듯긴대 문 기 에 당시고곳에서 굴지하는 부 기 대당시고곳에서 굴지하는 부 기 기 기수하는 요즘이 되었다.

오는십삼일로

明孝島民

일반이곳무사히바면되욧다리 가임으로 라주에 도착한지

和念講演

公風波

中國動亂是機會是

無根
む事實
呈

다이고 교사하야보학 송문의 다속에 권총수자부와 탄환원원 이고 즉시가첫는 행구를계속하 아 묘사하여보축 행구속에집히 다사하여보축 행구속에집히 가 또발된 기는고로 즉시수상정

行方不明者 十五年間

婚拒絕同盟會

지 하시는지 등 이 한 한 시는지 등 시를하십시다 그러의 부산에는 시험산발취한 이런 소리를 하였다. 그런 나 속 이로는 나 혼자만 건길이 있습니다 다는 나는 나 혼자만 건길이 있습니다 다는 나는 나 혼자만 건길이 있습니다 다는 나는 사 혼자만 건길이 있습니다 다 그 것이라 하면 한 본이 내가 본지 도록하였이 나 한 요금하면 한 옷이 이 이 얼마나 하는 이 웃고십건 우서라 七四人間

주 나 시 스 한 한 전 이 전 기 의 전 기 의 전 기 의 전 기 의 한 이 된 보고 한 된

○中央基督市年間は 시내조선 ○中央基督市年間は 시내조선 電影が型出の分別を持つの ひ田刻 頭題 民主主義의質的意義 では、一大工工工業のでは、 のののでは、 ののののでは、 ののののでは、 ののののでは、 ののののでは、 ののののでは、 ののののでは、 のののでは、 のののでは、 のののでは、 のののでは、 ののでは、 の

지 남편은 벌떡날이나게 되었는 하고 들어오더니 버스릭버스펙 등이 이는 사지는 아이스나 모른화하

業

지나간산일

日の中田田八石の

守直料金增額品

い自滅策

兄弟間爭訟

有力者洪光義氏

西門署刑事 價藏事件

전不에な引起소년で

갈바를모르는 七十歲의老驅 오 再州 な 即是 对 不 智 思 今的明拉於全世民計正

计四号编数

지 배월창월한원상과 괴파망축 등단지도못한그롱을거운분으로는 지금색삼스럽게 봇을를 당시되고 되었다. 그러나지 기막하는 지금색삼스럽게 봇을를 당시되고 하는 지금 한 사이 이 보고 있는 지금 보고 한 이 이 보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수 한 소리는 교육 보고 그리는 그의 정의 대한 보고 의 교육 보고

무인 기 후 전 전 기 후 전 전 기 후